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The logo is circular, with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top and "제주대학교" at the bottom. In the center, there is a stylized flame or leaf shape in blue, green, and purple, with "JEJU 1952" written below it.

碩士學位論文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廷 禧

2011年 8月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

指導教授 許 允 德

金 廷 禧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6月

金廷禧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1年 8月

<국문초록>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극복

金 廷 禧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許 允 德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 1874-1963)는 뉴잉글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한 많은 시를 썼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그 자체로의 대상이 아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현대 사회 질서와 개인의 삶에 혼란을 야기 시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사물이나 풍경,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인간의 갈등을 통해 인간 본질의 이상향을 찾고 인간의 갈등 양상의 요소를 해결하고자 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갈등의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일상과 일탈 사이의 갈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에서 자연을 어둡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공포와 절망감을 주고 인간 존재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그는 궁극적인 실재를 찾고자 자연에 맞서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프로스트는 자연이 인간에게 냉담하며 심지어는 해를 가하기도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악의적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무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자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한 고립과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연이라는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지배아래에 있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악의를 품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그러한 자연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고뇌에서 프로스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시에서 이해와 의사소통의 단절에 기인한 인간 상호간의 갈등을 다루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연이라는 배경의 상징을 사용하여 그 속에서 인간의 노동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개성을 이해하고 타협함으로써 그런 갈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인간 갈등의 양상 세 번째로, 프로스트는 일상과 일탈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한 고뇌 극복 방안으로 프로스트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수용의 태도 그리고 노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고립이나 단절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노동은 자연과의 단절감을 극복

※ 본 논문은 2011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하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의미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은 그 가치를 깨닫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초점은 광대하고 다양한 인간 고뇌의 심연을 배회하는 데에 있다. 비록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일부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위협적인 자연을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면서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프로스트의 시가 주장하는 바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프로스트가 인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스트가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그는 인간의 갈등을 삶의 진수로 보고 인간의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삶의 실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차	iii
I. 서론	1
II. 갈등의 양상	6
1. 인간과 자연	6
2. 인간과 인간	18
3. 일상과 일탈	29
III. 갈등의 극복	37
IV. 결론	50
Bibliography	54
Abstract	56

I. 서론

프로스트(Robert Lee Frost, 1874~1963)는 뉴잉글랜드 자연에 밀착된 삶을 중요한 소재로 삼은 시인이다. 자연을 시의 주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점으로 인해 그는 자주 자연 시인이라 불리곤 한다. 프로스트가 쓴 자연시는 자연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자연을 노래하려고 한 시가 아니다. 프로스트 자신도 NBC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스스로 자연 시인(nature poet)이 아니라고 직접 말하면서 늘 자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자연을 다루면서도 자연을 노래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등장하는 인간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시를 썼다. 특히 그는 자연과 관련하여 인간이 겪는 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그의 시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그 갈등의 조화와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프로스트가 자연으로 향하고 자연 속에서 생각에 잠기는 태도를 보면 이상적인 자연 속으로 도피하여 현실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려고 하던 전통의 목가(pastoral)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20세기 초반의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에 깊이 관여한 시인 자신의 깊은 고뇌를 그려내는데 있어 현실의 무대에서 후퇴하여 오히려 현실을 보다 면밀히 보려 했던 목가의 전통을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에 현실의 모습과 동떨어진 뉴잉글랜드라는 소박하고 협소한 농촌 지역으로 물러나 복잡한 현대인의 일상과 어울리지 않는 뉴잉글랜드의 농부의 단순한 일상으로 파고들어간다.

목가의 틀 속에서 드러나는 프로스트의 자연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의 시인들의 자연관과 차별된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인간에게 더 이상 감상의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니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늘 인간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뚜렷한 의미를 전해주지 않는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때로는 미적 대상이다가도 때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뉴잉글랜드 지방을 통해 드러나는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은 신비롭고 깊은 아름다움을 자아내다가도 자주 어두운 면모를 띠고 주인공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프로스트의 관점은 결국 인간이 겪는 갈등, 즉 소외감과 고독, 두려움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

프로스트는 자연에 맞서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며 그에 대한

삶의 해명을 제시한다. 즉 프로스트는 자연을 통해 본 인생의 궁극적인 통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와 태도를 찾으려 한다.

트릴링은 “그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은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평이하고 명백하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중은 두려운 것들을 평이하게 그려내는 시인만이 그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¹⁾

트릴링(Lionel Trilling)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프로스트의 시의 주제가 보편적인 삶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뜻한다. 프로스트가 주로 소재로 다룬 뉴잉글랜드의 자연과 그 속에서의 삶은 평이하고 소박한 것으로 그 일차적인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나 그 뒤에는 항상 삶의 본질과 해명 그리고 극복에 대한 이차적인 의미가 숨어있고 이것이 바로 그가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통찰의 내용이다. 이처럼 프로스트는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소재로 그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것을 잘 나타내어 그의 시들은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간단하게 보이는 시의 소재를 가지고 더 높은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추구하는 프로스트의 시적 주제가 얼마나 인간의 삶과 깊게 결부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자연에게서 늘 떨어져 존재하는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자연에 개입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뉴잉글랜드 지방의 목소리를 가진 시의 화자나 주인공들은 구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자연에 개입한다. 시의 화자는 고된 노동을 통해서 자연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제한적으로나마 채워보려 하지만, 노동하는 자신의 모습은 자연과 더욱 분리된 자신의 모습을 비취줄 뿐이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인간과 자연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의 가능성과 분리의 경험을 동시에 지닌 노동의 의미는 자아의 모습을 찾아가는 동안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한다. 인간은 애매모호한 의미를 띠는 자연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의 속성에 혼란스러워하고 관계를 열망하는 자신의 시도는 결국 자신의 소외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된다.

소외의 문제는 현대 시인들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프로스트는 일상의 자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예리한 시선으로 일관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이 맺어 가는 관

1) John David Sweeney & James Lindroth, *The Poetry of Robert Frost: A Critical Guide to Appreciation of Meaning, Form, and Style* (New York: Monarch Press, 1965), pp. 79-80.

계의 문제를 현실에서 한걸음 물러난 곳에서 진지하게 탐색하는 태도는 시인으로서 현대성의 논의로 연결된다. 근원의 자연과 관계를 시도하고 고뇌하는 화자들의 모습은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관계'의 좌절을 깊이 맛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프로스트의 시의 실제 현실은 현대의 복잡한 삶과 동떨어진 뉴잉글랜드의 소박한 시골 생활이지만 프로스트의 자연과 농부의 모습은 산업화된 도시에는 겪는 삶의 문제를 오히려 더욱 잘 보여준다. 구체적인 일상의 묘사는 자연의 실체에 대한 예리한 관점으로 나아갔고, 고뇌하던 인간의 모습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한결 같이 객관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의 소외에 대해 누구보다 강렬한 어조로 천착했던 프로스트에 대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등장하는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진지함과 철학적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있음은 라이넨(John F. Lynen)의 견해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비록 비평가들이 프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는 탁월한 시각과 농부로서의 명민함 그리고 야만적인 자연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발견하기는 했으나, 그들은 프로스트의 자연시와 우리를 제약하는 19세기의 자연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실패했다.²⁾

프로스트는 시의 소재가 되는 거대한 섭리라고 할 수 있는 자연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계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혼란과 갈등을 겪는지 보여준다. 때문에 자연은 하나의 배경과 도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 속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보다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는 두려움, 소외, 상실감과 단절감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그는 인간으로서의 엄연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확실히 프로스트의 시는 자연의 심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를 “자연 시

2) John F. Lynen,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ature and Pastoralism* (New Haven: Yale UP, 1960), pp. 140-161.

인”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자연의 찬송자로 생각하는 것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어둠의 복합적 의미에 대해 간과함으로써 그의 시를 왜곡하는 것이다. ...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심오한 불안감, 심지어 두려움과 같은 주된 감정의 어조를 발견할 수 있다. 3)

프렌츠(Roberts W. French)가 지적한 대로 프로스트의 시에서 자연은 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프로스트는 긍정적, 부정적 의미 중 자연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시를 많이 썼다. 자연의 부정적인 면이란 인간에게 가하는 자연의 공포를 뜻한다. 프로스트의 자연은 뉴잉글랜드 지방의 자연에 관한 정서를 담으면서도 아름답고 신비하기도 하지만 냉엄하고도 무서운 정경이 공존하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의 고뇌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 상호간 의사소통의 단절과 대립 등으로 인한 인간의 소외감, 고독 등에 관해서도 많은 시를 썼다. 그는 그러한 여러 갈등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삶을 조명하고 갈등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스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대한 자연과 우주 안에서 미약한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소외감과 고립감 등의 갈등을 느끼지만, 이들은 열악한 전의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지적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며, 고독한 인간의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면서 도덕적 지혜를 추구한다. 프로스트의 시 세계는 그의 시론 「시 창조와 도형」(“The Figure a Poem makes”)에 잘 나타나 있다.

시는 기쁨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끝난다. 이 비유는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이것은 기쁨에서 시작하여 충동에 기울고, 첫줄로 방향을 잡아 행복한 사건을 거친 후 인생의 해명(解明)으로 끝난다. 4)

프로스트에게 있어 시의 목적은 “인생의 해명”이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삶을 혼란과 갈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러한 혼란스러운 인상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해명을 꾀하는 것을 시가 해야 하는 역할로 본다.

3) Roberts W. French,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Critical Essays on American Literature*, ed. Philip L. Gerber (Boston: G.K. Hall & Co., 1982), p. 155.

4) Robert Frost, "The Figure a Poem Makes," *Se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Hyde Cox and E.C. Lathe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p. 18.

그는 이러한 시론에 입각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표현하고 자연 속에서의 조화를 통해 혼돈 속에서 겪는 삶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숙한 삶으로의 승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의 시를 통해 고통과 슬픔의 흔적이 있는 인간의 삶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일상의 삶에 지친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노동을 다룬 여러 작품을 통해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에게 고독과 좌절, 소외감, 심지어 죽음까지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하고, 일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고 인간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가 그리는 인간의 모습은 주로 자연과의 상관관계에서 파악되는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이며, 프로스트의 시들은 자연세계와 인간 사회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진실을 깨닫게 한다.

본 논문은 프로스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이 겪는 갈등을, 첫째,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 둘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시, 셋째, 인간 내면의 일상과 일탈 사이에 느끼는 갈등을 보여주는 시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갈등을 인간의 도전 정신과 수용적 태도 및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적극적인 수단이자 의무인 노동을 통해 인간의 외적, 내적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프로스트가 추구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프로스트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지혜와 통찰의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존재와 삶을 새로이 인식하고 삶의 의의와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자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갈등의 양상

1. 인간과 자연

프로스트의 작품 속에서의 자연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공간적 배경이다. 중요한 점은 프로스트가 자연과 인간을 독립적으로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즈워드가 위안과 정신의 치유를 얻기 위해 자연으로 간 것과 비교된다. 낭만주의 시인에게 자연이 자기인식의 원천이라면, 프로스트에게 자연은 자기인식의 수단을 의미한다. 위즈워드와 프로스트를 비교하여 몽고메리(Marion Montgomery)는 "프로스트의 시의 큰 주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인 반면 위즈워드는 자연의 전경 자체를 서정적으로 그려낸다."⁵⁾라고 말한다. 위즈워드와 같은 낭만시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연 속에는 우주의 혼(spirit)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어서 인간이 그 혼을 느낄 때 숭엄한 의식을 얻게 되고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반면, 프로스트의 자연은 아름답고 자비롭기도 하지만, 냉엄하여 시인은 그 앞에서 소원감과 공포감을 느끼기도 한다.

위즈워드가 주로 자연세계의 파노라마를 감정적으로 잘 전개하는 반면에 프로스트는 자연에서의 인간의 드라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시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프로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자연 그 자체를 감탄하고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다. 위즈워드가 자연에 도취되어 흘러넘치는 감정으로 자연을 찬미하며 인간을 그에 몰아일체시키는데 반해 프로스트는 자연보다 인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연에서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가지 내용을 시에 담아 자연과 인간은 일치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다. ⁶⁾

프로스트가 다루는 자연은 초월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자연의 의미와 거리가 멀다. 그의 자연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니고 늘 시적 화자와 거리를 둔 채 모

5) Marion Montgomery,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8.

6) *Ibid.*, p. 138.

호한 속성으로 묘사된다. 자연은 냉혹하고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미와 위협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의미를 띤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현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과 인간은 결코 결합하지 못하고 서로 대치하면서 평행을 이루고 있어 분리된 존재의 양상을 보여준다. 즉 인간과 떨어져 있는 자연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존재로 작용하며 인간에게 늘 거리감을 주는 대상이다. 늘 함께 등장하는 인간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속성은 프로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이미지로도 설명될 수 있다. 자연은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다가 곧잘 어둡고 냉기를 느끼게 하는 양면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면서 중립적인 속성의 자연은 인간에게 뚜렷한 의미를 전해주지 않으며 혼란을 준다. 자연은 호의적이지만 한 존재가 아니며 때때로 나타나는 어둠의 이미지는 두려움을 일으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서 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더한다.

이러한 프로스트 시에서 나타난 양면성의 특징을 라이넨은 “그의 시들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관점의 양면성은 프로스트의 주요 사상적 특징이며, 그 기원은 자연에 대한 그의 관념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⁷⁾라고 말한다.

그리고 거버(Philip G. Gerber) 역시 프로스트의 자연을 바라보면 관점의 양면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실히 자연은 자비로운 신으로 숭배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자연은 험악한 표정을 가진 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인간을 말살하기 위하여 내려치는 천둥번개를 가진 존재로 무섭게 묘사되기도 않는다. 오히려 두 가지 요소들이 공존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적대자이기도 하다.⁸⁾

우선 긍정적인 모습의 자연에서 인간은 자연 생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다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연의 모습으로는 자연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인간에게 해를 끼치려 함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사이에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혹독한 자연과 마주할 때 두려움과 고독을 느끼면서 심한 갈등을 겪는

7) Lynen, p. 177.

8) Philip L. Gerber,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66), pp. 157-158.

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관심하고 위협적인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감에 외롭고 또 더러는 소멸되어가는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상실감과 삶의 허무를 느끼기도 한다. 라이넨과 거버의 말처럼 프로스트의 작품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양면성의 특징은 자연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은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전 세계에 대한 사상으로, 결국,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인간이 처해있는 상황으로서의 자연 안에서 프로스트는 항상 객체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인간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문제의 복잡성을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래서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 또한 양면적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인간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기도 하지만 인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실로 파괴적인 대상이기도 하다. 때로는 인간을 도와주고 한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매력을 발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그들과 대립하는 객체에 불과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연이 신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양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프로스트는 뉴잉글랜드의 자연을 통해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즉, 프로스트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게 우호적인 자연과 비우호적인 자연의 이원적 구조를 통해 비극적인 면과 낙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삶의 양면성을 제시한다.

프로스트의 시 속에 나타난 자연의 모습 가운데 긍정적이고 밝은 자연은 주로 목가적인 배경과 함께 나타난다. 긍정적인 이미지의 자연은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세계를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스트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프로스트는 도시의 혼돈과 복잡함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치와 인간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유도한다.

「물 길러 가기」 (“Going for a water”)는 프로스트가 숲과 물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시이다. 이 시 속에는 자연에 대한 프로스트의 사랑과 믿음이 표현되어 있다.

...
숲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달을
맞이할 듯 달려간 우리.
있도 없는 메마른 가지에는

새도 없고 바람도 없었지.

하지만 숲 속으로 들어간 우리,
달빛을 가려 주는 요정처럼 멈췄다가
달에게 들키면 웃음 웃으며
새로이 숨을 곳을 찾으려 했지.

손으로 서로 서로 막으며
눈으로 보기 전에 들으려 했지.
우리 함께 숨을 죽이니
귓전에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단 한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그 가락,
쨍그랑 떨어지는 가냘픈 소리
방울지어 물 위를 떠다니는
진주 같아라, 은빛 풀잎 같아라.

...

We ran as if to meet the moon
That slowly dawned behind the trees,
The barren boughs without the leaves,
Without the birds, without the breeze.

But once within the wood, we paused
Like gnomes that hid us from the moon,
Ready to run to hiding new
With laughter when she found us soon.

Each laid on other a staying hand
To listen are we dared to look,
And in the hush we joined to make
We heard, we knew we heard the book.

A note as from a single place,
A slender tinkling fall that made
Now drops that floated on the pool
Like pearls, and now a silver blade.⁹⁾

정겨운 숲의 뒤쪽에서 떠오르는 달처럼 조용하게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과 그들의 자연에 대한 애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자연은 인간에게 우호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에 따라 개울물을 찾아 나선 부부의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시각으로 보여준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달빛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숲 속에서 달과 자연과 인간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다. 그들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리한 관조의 순간이며, 인간과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다.

「지시」(“Directive”)에서 또한 자연은 인간의 상실된 자아와 인간 본연의 순수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에게 구원자이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는 안내자이다.

개울가 고목 삼나무의
발등 속에 나는
깨진 잔 하나를 성배처럼 숨겨 놓고서
마법을 걸어 부저한 자들이 찾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 마가의 말대로 구원받지 못 하였다.
(나는 그 잔을 아이들의 장난감 집에서 몰래 가져왔다.)
여기서 당신의 물과 물 얻을 곳이 있으니
이 물을 마시고 다시 온전함을 되찾아 혼란에 빠지지 마시오;

9) Robert Fros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p. 18.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프로스트의 모든 시작품들은 위의 책에서 인용하고, 이후 인용 작품의 출처는 인용문 끝의 괄호 안에 쪽수를 밝히도록 함.

I have kept hidden in the instep arch
 Of an old cedar at the waterside
 A broken drinking goblet like the Grail
 Under a spell so the wrong ones can't find it,
 So can't get saves, as Saint Mark says the mustn't.
 (I stole the goblet from the children's place.
 Here are your waters and your watering place.
 Drink and be whole again beyond confusion; (379)

이 시의 화자는 마을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미 잡초가 무성해진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다. 그 땅에 살던 농촌 사람들은 도시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모두 마을을 떠났다. 이 화자는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버린 깨어진 장난감을 발견한다. 그는 그것을 주워 들고 갈증을 달래기 위하여 들판을 흐르고 있는 개울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이 개울 가까이에 강이 근원지가 있다. 이 근원에 대한 은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위치가 자연의 힘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힘을 지니는 신성한 물을 담아 마시는 이 쪼개진 장난감은 성배가 된다. 인간 생명의 근원으로서, 재생을 상징하고 있는 물 또는 개울과 강은, 화자로 하여금 현실에서 오는 온갖 혼란을 모두 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인간에게 적대적이며 비우호적인 자연의 모습은 또한 여러 편의 시에서 나타난다. 예컨대 「어느 노인의 겨울 밤」 (“An Old Man's Winter Night”)은 인간이 어둠의 자연에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황을 암시한 작품이다. “문 밖의 모든 것이 어둡게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All out-of-doors looked darkly in at him....)”라고 시작되는 첫 행은 시 전체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얇은 서리를 통해 멀리 보이는 별들은 텅 빈 방의 창에 모여 음산한 노인의 방을 비추고 있다. 지하실을 무거운 몸으로 오르내리며 적막한 겨울밤을 보내고 있는 노인은 그나마 희미한 램프의 불빛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불빛은 자신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증명해 주기라도 하는 것 같다.

한 늙은이는 집을 지킬 수 없지.

농장도, 이 시골 구석도, 그렇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에 한 겨울밤 그는 그것을 하는 것 뿐이다.

One aged men-one man- can't keep a house,
A farm, a countryside, or if he can,
It's thus he does it of a winter night.(108)

죽음에 맞서듯 혹독한 겨울밤을 지키고 있는 노인의 처지를 통해 자연이 갖는 강렬함과 왜소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다.

외롭고 긴 어둠의 밤이라는 냉혹한 상황에 외롭게 내던져진 노인의 두려움은 「폭풍의 공포」 (“Storm Fear”)를 느끼는 화자에게도 보인다. 칠후 같은 어둠 속에 눈보라를 몰고 온 폭풍은 맹렬하다. 거센 눈보라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방 안에 잠자는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하며 싸움을 걸어오지만, 인간은 두려워 맞서지 못한다.

아래층 동편 창문이
울부 짓는 소리로 속삭인다.
짐승은
“나와! 나와!”-
집안의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

The lower-chamber window on the east,
And whispers with a sort of stifled bark.
The beast.
"Come out! Come out!"-
It costs no inward struggle not to go, (9-10)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연에 대해 프렌치는 인간에게 악의를 지니고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연은 무자비하고, 야만적이고, 인간을 그의 파괴로 유혹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리고 심지어는, 자연은 재앙으로 이끄는 잔인하고, 음모를 꾸미고, 현혹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한 적극적인 악의를 직면하여, 시인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깊은 감정을 느낀다. 그러한 적수를 대항하여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10)

자연의 파괴적인 속성 앞에 인간은 심하게 부적응을 느끼며 불확실한 어려운 상황에서 혼란을 겪는다.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뚜렷이 보여주며 자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파괴성을 보여주는 시에는 「어느 날 태평양 해안가에서」 (“Once by the Pacific”)가 있다.

부서진 물결은 뿌연게 소란을 피웠다.
거대한 파도는 밀려오는 다른 파도를 돌아보며
여지껏 물이 물에 가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 볼까하고 생각하였다.
낮은 구름이 하늘에 털 뭉치 마냥 깔려있었다.
번쩍이는 눈 위로 쓸려 내린 머리카락처럼
벼랑이 해안을 받쳐주고
대륙이 벼랑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마치 어두운 기운의 밤이,
밤뿐 아니라 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광분함에 대비함이 좋을 것이다.
“불을 끄라” 는 신의 마지막 말이 있기 전에
부서지는 건 바닷물만이 아닐 것이다.

The shattered water made a misty din.
Great waves looked over others coming in,
And thought of doing something to the shore
That water never did to land before.
The clouds were low and hairy in the skies,
Like locks blown forward in the gleam of eyes.
You could not tell, and yet it looked as if

10) French, p. 56.

The shore was luckily in being backed by cliff,
 The cliff in being backed by continent;
 It looked as if a night of dark intent
 Was coming, and not only a night, an age.
 Someone had better be prepared for rage.
 There would be more than ocean-water broken
 Before God's last *Put out the Light* was spoken.(250)

이 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모습은 음산하고 거센 기세로 육지를 삼켜 버릴 것 같은 파도와 구름으로 나타난다. 어두운 밤은 적의를 띤 모습으로 분위기를 더 음산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칠 듯한 불길한 예감을 더해준다. 이 시에는 바다로 대표되는 자연과 육지로 표현된 인간세계의 대립과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 파도가 주는 긴장감은 자연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더욱 뚜렷하게 한다. 자연의 거대한 힘이 인간에게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장면에서 프로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이미지와 의미에 대해 맥클라나한(Thomas MacClanahan)은 "자연은 임의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혼돈의 타자로 보여 지지 않으며, 오히려 악의에 찬 의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1)고 말한다.

이 시에 나타나는 밤의 이미지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좌절을 반영한다. 화자는 예사롭지 않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는 악의에 찬 자연이 먼저 세상과 인간을 파괴할 것이라는 인간의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포터(James L. Potter)도 이 시에 나타난 자연이 무관심과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시는 무관심한 우주뿐만 아니라 야수와 같은 악의를 지닌 우주를 암시한다. 이 시에는 암흑의 의도에 대한 정당화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희생물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12)

인간은 자연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은 무관심하며 아마도 심지어는

11) Thomas MacClanahan, "Word I had No one But God," *Centennial Essays II* (Jackson: Mississippi UP, 1974), p. 119.

12) James L. Potter, *Robert Frost: A Handbook*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P, 1980), p. 50.

인간에게 적대적이기 까지 하다. 자연은 인간보다 강하여 결국 인간은 우리가 흔히 보듯이 고독과 좌절감에 무너지는 것이다.

프로스트는 인간의 현실로서의 자연을 다루면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고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실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자연의 부정적인 모습에 의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성과 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프로스트 시는 인간의 잠재력보다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성을 의식한다. 자연의 어둠의 이미지와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느끼는 거리감은 프로스트가 깨달은 자연의 특징이다. 어둠이라는 자연의 속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에 대해 위협을 느끼게 하여 근접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프로스트의 인물들은 냉담하고 동떨어져 있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상황을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곧 소외를 전제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황폐한 곳」("Desert Places")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있는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 내면에 자리한 깊은 고독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한다. 들판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밤은 더욱 빨리 내리고 있는 가운데 화자는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동물들도 자신들의 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적막한 밤의 풍경은 인간의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구체화시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별들 사이의 공간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간들 사이에 살면서도 가슴 속에 도사리는

황폐한 공간을 나는 두려워한다.

They cannot scare me with their empty spaces

Between stars- on stars where no human race is.

I have it in me so much nearer home

To scare myself with my own desert places.(296)

인간들이 존재하지 않는 별들 사이의 빈 공간은 두렵지 않으나, 인간들 사이에 살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 도사리는 적막한 공간이 오히려 더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구절은 절실한 고독을 경험한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에게서 찾게 된 "적막하고 황폐한 공간"에서 인간이 서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지 못한 채

자아는 자연과의 분리의 차원을 넘어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된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전부였다」(“The Most of It”)에서 프로스트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준다. 이 시에서 화자는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인 메아리뿐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의 외침에 답해주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어느 날 아침 자갈 깔린 물가에서
그는 인생에 대하여 외쳐댔다.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은
메아리치는 사랑의 복사한 대답이 아니고
화답하는 사랑이요. 우리나라는 사랑이라고.

Some morning from the boulder-broken beach
He would cry out on life, that what it wants
Is not its own love back in copy speech,
But counter-love, original response.(338)

화자는 자신이 그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인 것이다. 화자는 자연이 자신에게 “화답하는 사랑이요. 우리나라는 사랑(counter love, original response)”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프로스트가 시에서 인간을 자연에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처한 자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삶의 해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구하는 물음에 대해 자연이 답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로 인간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라이넨의 지적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자연을 통해 사랑의 표현에 대한 인간의 탐색은 약간 감상적이거나 어리석은 런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도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혼자 울리는 사랑의 메아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¹³⁾

13) Lynen, p. 148.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해답을 찾으려 하는 것이나 자연을 통해 낭만적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감상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일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상대가 보내오는 정다운 화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삶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야말로 프로스트가 제시하는 인간 스스로 삶에서 진정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인 것이다.

2. 인간과 인간

프로스트의 시에는 갈등을 보여주는 시가 많다. 그 갈등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하여 한 개인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고립, 고독의 문제들을 포함한 인간 상호간의 갈등은 프로스트가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주제이다. 그의 시에서 나타나는 인간 사이의 단절과 소외의 여러 모습들은 사고나 생활 방식의 차이, 의사소통의 벽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이해와 신뢰, 애정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

부부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가족 묘」(“Home Burial”)에서 아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냉담해 보이는 남편의 태도에서 인생이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것이고, 세상은 비정하다고 느끼며 처절한 고독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요. 죽을 병이 든 그 순간부터
사람은 혼자예요. 죽을 땀 더 그렇죠.
그 사람의 친구들은 묘지로 따라가는 시늉을 하지요.
그러나 죽은 이가 미처 땅속에 묻히기도 전에 벌써 그들은 삶과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로 돌아가지요.
하여간 이 세상은 나빠요.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렇게까지 슬퍼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정말이에요!”

“No, from the time when one is sick to death,
One is alone, and he dies more alone.
Friends make pretense of following to the grave,
But before one is in it, their way back to life
And living people, and things they understand.
But world's evil, I won't have grief so
If I can change it. Oh, I won't, I won't!”(54)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아내와 남편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다. 아내는 아이의 죽음을 “나는 저주받았어요.(I'm cursed.)”라고 표현하며 신의 저주로 받아들이지만, 남편은 이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을 계속한

다. 이렇듯 죽음에 대해 아내와 남편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슬픔이 크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있어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인생에는 큰 슬픔이 있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 남편은 슬픔을 가라앉히고, 일상사로 생의 표면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아내는 그녀의 슬픔을 도처에 퍼뜨리며 모든 일상사에 확산시킨다.¹⁴⁾

도일(John Robert Doyle)의 지적은 남편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슬픔에 있더라도 그 슬픔을 깊은 곳에 묻고 삶을 계속 영위하려 하지만, 아내는 벽찬 슬픔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상에 그 슬픔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자식을 잃은 남편의 고통이 아내의 슬픔보다 못할 리 없으며, 다시금 일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하는 인간의 현실이 슬프고 비정한 것인데도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으로 남편을 몰인정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남편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프로스트는 이러한 이해의 부족한 오랫동안 의사소통의 단절과 부부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에서 기인하며 상대방을 고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내는 손수 땅을 파서 자식을 묻고 돌아온 남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담담한 태도로 아내의 슬픔을 달래주려고 애를 써 보지만 아내는 오직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무심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아내는 자신의 남편까지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를 확대해서 일반화시키면 결국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혼자’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단절의식과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특히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벽을 쌓고 상호 갈등만 증폭시킨다. 외로움은 반드시 환경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며, 결국 인간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임을 프로스트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시로 「서쪽으로 흐르는 강」 (“West Running Brook”) 이 있다. 시 속의 화자인 젊은 부부는 모든 시골의 개울이 동으로 흐르는데 비해 유독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보면서

14) John Robert Doyle,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73), p. 38.

명상에 잠긴다.

모든 개울이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가는데
어째서 이 개울만 서쪽으로 흐르고 있나요?
아마도 이 개울은 역으로 나가도 된다고 믿나 봐요
제가 당신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듯이-
우리가 그러는 것은 - 우리? - 도대체 우리는 뭐지요?

...
저기 좀 봐요. 마치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저 개울이 파도를 일으키며 손짓하고 있네요.

When all the other country brooks flow east
To reach the ocean? It must be the brook
Can trust itself to go by contraries
The way I can with you - and you with me -
Because we're - we're - I don't know what we are.
...
Look, look it's waving to us with a wave
To let us know it hears me.(258)

역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과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결속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나 9행의 'I don't know what we are'에서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사람을 맺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또한 개울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개울이 파도를 일으키며 손짓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남편은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설명을 한다.

이렇게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개울물은 흘러가면서도 항상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회진(回進)하기도 하지.

It has this throwing backward on itself

So that the fall of most of it is always

Raising a little, sending up a little.(259)

감상적인 아내에 비해 남편은 시냇물의 역방향에서 인간 존재와 근원의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그리고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태도로 개울의 파도와, 실존하는 것의 근원에 대해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사소한 데에서 갈등을 빚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어지는 행들에서도 자칫 화합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된 두 남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저 개울은 당신 것이야. 맘대로 해요.”

“그렇지 않은데요. 무슨 생각을 하지는 거지요?”

“... It is your brook! I have no more to say”

“Yes, you have, too. Go on. you thought of something.”(259)

아내의 감상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어 대화의 단절 위기에 처하지만, 아내의 섬세함으로 대화가 계속되고 마지막 행의 “오늘은 우리 둘이 이야기한 날이 될거예요.”라는 결말을 이끌어 낸다. 이 시는 남자가 합리적이고 파괴적이며 냉정한 반면, 여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력이 있으며 감각적인 면에 기울어져 있어 상처받기 쉬운 경향이 많다¹⁵⁾라고 함으로써 남녀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 시는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명상과 남녀의 사고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작은 배려가 남녀 간의 화합을 이루고 상호간의 갈등과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게 해 준다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인간의 소외감은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하인들의 하인」(“A servant to Servants”)에서 프로스트는 남편의 무관심과 애정 부족, 대화의 단절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묘사한다. 이 시에서 화자는 집안일과 농사일에 지쳐 있으면서도 남편과의 대화를 시도해보는 뉴잉글랜드 지방

15) Potter, p. 141.

의 주부이다. 하지만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농장에 고용된 일꾼에게서 마저 무시당하자 이대로 간다면 미쳐버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쫓기며,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자신의 희망 없는 삶을 극적 독백을 통해 나타낸다.

내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손을 들어올리기는 원하는 것 외에는
이제 더 이상 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어요
(오, 나는 손을 올려야 할 때에 손을 올릴 수 있어요.)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심지어 내가 기쁜지 슬픈지 안타까운지
그 밖의 어떤 느낌인지도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죠.

I can't express my feelings, any more
Than I can raise my voice or want to lift
My hand(oh, I can lift it when I have to).
Did ever you feel so? I hope you never.
It's got so I don't even know for sure
Whether I am glad, sorry, or anything.(63)

끊임없는 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있고 더 이상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는 마침내 소외감과 두려움으로 정신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남편은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렌은 말한다. 사람은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고.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끝을 내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는 그 말에 동의한다.
일을 마무리짓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안다.

Len says one steady pull more ought to do it.
he says the best way out is always through.
And I agree to that, or in so far
As that I can see no way out through - (64)

남편 렌(Len)은 계속되는 일로 지쳐 있는 아내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계속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부부가 아니며, 처음 결혼했을 때와는 달리 대화도 하지 않고 지낸다. 이 작품은 지나친 노동으로 서로에 대해 배려할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를 사는 부부간의 대화의 단절은 소외감과 사랑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 개의 부제가 붙은 시 「언덕 아내」 (“The Hill Wife”)에서도 남편의 무관심이 아내를 고립시키고,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나누어 그린다. 첫 번째 시, 「외로움」 (“Loneliness”)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의 불만을 독백조로 이야기 하는데 이는 산중에 사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시 「집의 공포」 (“House Fear”)에서는 외딴 산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묘사되어 있고, 세 번째 시 「미소」 (“The Smile”)는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확산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시 「되풀이되는 꿈」 (“The oft-Repeated Dream”)에서는 두려움이 심화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다섯 번째 시 「충동」 (“The Impulse”)에서는 더 이상 황량한 공간에서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남편과의 소원한 관계에서 맞이하는 밤과, 낯선 사람으로부터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아내는 「되풀이되는 꿈」 (“The Oft-Repeated Dream”)에서 침실 유리창 위에 늘어진 소나무 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다.

그들의 침실 창문 고리를
출골 벗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검은 소나무에 대한 두려움을
그녀는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She had no saying dark enough
For the dark pine that kept
Forever trying the window latch
Of the room where they slept.(128)

아내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임을 보여준다. 남편의 무관심, 부부사이의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려는 아내는 마지막 시 「충동」 (“The Impulse”)에서 남편을 따라서 들과 산으로 나가

홀로 자신의 노래를 불러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함께 해 줄 이가 없었다.

하루는 검은 오리나무 가지를
꺾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멀리 나가 그만 길을 잃어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무덤 곁에서
남편은 알았습니다.

And once she went to break a bough
Of black alder.
She stayed so far she scarcely heard
Where he called her -

...
And he learned of finalities
Besides the grave.(129)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아내를 찾아 숲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아내의 무덤을 발견한다. 프로스트는 대화와 감정의 단절이 소중한 사람을 소외감으로 고립시키고,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담장 고치기」 (“Mending Wall”)에서는 이웃 사이에 돌담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단절과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인간 상호간의 단절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려는 노력 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려는 사람과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의 대조를 통해 시가 전개되어 나간다.

무엇인가 담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놈이 담 아래 흙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담 위쪽에 놓인 돌들을 굴러 떨어지게 하거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든단 말이야.

.....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틈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도 모르게
봄철 담장 수리할 때면 나타나거든.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That sends the frozen-ground-sell under it
And spills the upper boulders in the sun,
And makes gaps even two can pass abreast.

.....
The gaps I mean,
No one has seen them made or heard them made,
But at spring mending-time we find them there.(33)

이 시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자신들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두 이웃 사이에 가로놓인 두꺼운 벽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한다. 극적 독백(dramatic monologue)의 형식을 취하면서 해학적이고 장난스런 어조로 쓰여진 이 시는 시골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봄이 되어 과수원 집 주인과 그 이웃인 솔밭 주인이 함께 그 담장을 고치는 장면이 묘사된다. 봄만 되면 어김없이 담장이 무너져 그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그 무너진 틈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담장이 무너진 원인 중에는 인위적인 것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어떤 것(something)”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애매한 면이 있지만 그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것이란 아마도 자연에 인간이 가하는 어떤 인위적인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어떤 질서의 원칙과도 같은 의인법적인 것이다. ‘Something’에 대하여 배리(Elaine Barry)는 그 의미를 “의인화되어 나타나는 ‘무엇’은, 아마도 자연의 영역에서 인위적 경계를 지으려는 인간의 시도를 부인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어떤 질서의 원칙일 것이다.”¹⁶⁾라고 파악한다. ‘어떤 것’이란 인위적인 시도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자연 속에 내재하는 어떤 질서의 법칙이라

16) Elaine Barry, ed., *Robert Frost on Writing* (New Burnswick, N.J.: Rutgers UP, 1973), p. 110.

는 것이다. 자연은 조화로운 세계인데 인간이 자연에다 경계를 이루는 담장을 쌓게 되자, 자연의 어떤 법칙이 이를 싫어하여 담장을 헐었다는 것이다.

봄철 담장 수리할 때면 이 틈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는 고개 너머에 사는 이웃집에 알려서
어느 날 함께 만나 경계선을 걸으며
우리 사이에 다시 담을 쌓아 올리지요.

But at spring mending we find them there.
I let my neighbor know beyond the hill;
And on a day we meet to walk the line
And set the wall between us once again.
We keep the wall between us as we go.(33)

화자는 어느 날 언덕 너머에 사는 이웃에게 무너진 담장을 고치자고 한다. 담장이 무너졌음을 먼저 알리는 화자 역시 담장이 개인의 영역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실재하는 물리적인 담,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나 그 담을 매개체로 하여 생성할 수 있는, 이웃과 자신 사이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생각한다. 반면에 이웃은 담을 땅의 경계로 생각하며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데 의미를 둔다. 그러므로 내용상 차이가 있으나 화자와 이웃은 둘 다 담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 시에서 담장은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벽과 같은 장애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벽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장벽은 인간을 분리시키기도 하고 조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기능은 양립한다. 장벽에 의해 유지되는 개별성은 인간의 중요성만큼이나 필요한 것이다.¹⁷⁾

포터의 지적은 현대인이 소외를 극복하고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개성과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간 상호간의

17) Potter, p. 49.

갈등은 인간이 자기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개성과 영역을 소중하게 인정할 때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소외감과 단절, 갈등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군중 속의 소외감 혹은 자아의 단절에 대해 다룬 시로는 「밤에 익숙한」("Acquainted with the Night")이 있다.

제일 슬픈 골목길도 기웃거렸다.
순찰중인 야경꾼이 지나가면서
설명하기 싫어서 시선을 떨구었다.

I have looked down the saddest city lane.
I have passed by the watchman in his beat
And dropped my eyes, unwilling to explain. (255)

이 시는 밤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어두운 내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4행에서 가장 슬픈 도시의 골목길을 내려다보는 화자는 자신의 감정에 빠져 순찰중인 사람이 옆을 지나가는 데도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 시선을 떨군다. 이는 "소통의 부재"¹⁸⁾을 보여주는 것이며 슬픔과 단절의 상태에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것은 포이리어(Richard Poirier)에 의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이리어는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가정이나 들판의 경계를 넘어 방황하는 것은, 이미 익수해져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가능성의 추구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⁹⁾라고 언급한다. 프로스트는 이 시에서 이웃 및 세계와 단절된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 상호간의 이해와 대화의 부재가 현대인의 소외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밤'이라는 내면적 어둠을 상징하는 배경 속에서 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은 사람과의 접촉과 대화를 피하고 있는 듯 하지만 고독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웃과 따

18) David A. Sohn and Richard H. Tyre, *Frost: The Poet and His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 55.

19) Richard Poirier,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Oxford: Oxford UP, 1979), p. 160.

스한 대화를 나누는 것임을 이 시는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부부사이에 애정의 결핍, 이웃이나 타인의 관계에서 각자 살아온 생활방식의 차이, 상호 이해부족, 서로의 마음속에 쌓아 놓은 장벽과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상호불신 등으로 빚어진 갈등의 모습을 보여준다.

3. 일상과 일탈

인간이 자연이나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대립과 갈등도 물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인간 자신의 존재 및 사물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인 선택을 앞두고 겪게 되는 고뇌와 갈등 또한 존재한다. 이것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이며 일상과 일탈 사이의 갈등이다.

프로스트의 시에는 숲을 모티브로 하여 현실세계로 일탈하고자 하는 충동을 드러내는데 「들어오라」(“Come In”)에 잘 나타나 있다.

서쪽에서 다한
태양의 마지막 한줄기 광선이
아직 티티새의 가슴에 살아있다
한 마디 노래를 더 불기 위하여

기둥진 어둠속 깊이
티티새의 노래소리 울린다
어둠속에 들어와
서러위하라 하는 듯이

그러나 아니다. 나는 별을 보러 나선 것이다.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오라한들 들어가지 않겠다
오란 말 들은 적도 없지만.

The last of the light of the sun
That had died in the west
Still lived for one song more
In a thrush's breast.

Far in the pillared dark
Thrush music went -
Almost like a call to come in

To the dark and lament.

But no, I was out for stars:

I would not come in.

I meant not even if asked,

And I hadn't been. (334)

화자는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어스름한 저녁 숲가에 이르자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오는 티티새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고 유혹을 받는다. 여기서 화자의 숲은 현실 세계의 번잡함을 다 잊고 폭 쉬고 싶어 하는 공간이며, 노래 부르는 새는 자신이 동경하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믿는다. 화자는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숲에 들어가지 않는다. 화자는 어두운 숲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과 두려움으로 망설임과 동시에 현실의 삶에 강한 긍정을 하면서, 나아가 그는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밝은 별의 세계로 향한다. “들어오라는 청을 들었어도 들어가지 않는다.(I meant not even if asked, And I hadn't been,)"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강하게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워렌(Robert Penn Warren)은 “새는 어디까지나 새의 처지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새가 어둠속에서 그의 실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간은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야 한다”²⁰⁾고 말한다.

화자는 숲의 유혹을 받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통하여 프로스트는 인간이 자신의 이상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갈등을 보여준다. 이렇게 숲의 아름다움과 유혹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에서 잘 보여준다.

나의 조랑말은 그 해 가장 어두운 밤
근처에 농가 하나 없는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멈춰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20) Robert Penn Warren, "The Themes of Robert Frost," *The Writer and His Craft: The Hopwood Lectures, 1932-195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pp. 225-226.

무슨 실수라도 있냐는 듯
말은 마구의 종을 흔들어댄다.
다른 소리라곤 오직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눈송이 날리는 소리 뿐.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하리,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하리.

My little horse must think it queer
To stop without a farmhouse near
Between the woods and frozen lake
The darkest evening of the year

He gives his harness bells a shake
To ask if there is some mistake.
The only other sound's the sweep
Of easy wind and downy flake.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But I have promises to keep,
And miles to go the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224-225)

위에서 화자는 눈 내리는 저녁에 말을 타고 시골 숲가를 여행하고 있다. 숲은 사랑스럽고 고요하고 신비로울 정도로 정막이 감돈다. 이러한 숲가를 지나다가 멈추어 서있는 화자에게 말은 의아해 하면서 방울을 흔든다. 아름답기만 한 숲의 모습 앞에서 화자는 깊은 명상에 잠기면서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어둡고 깊고 아름다운 숲을 관조하면서 그 속에 빠져들고 싶지만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길을 재촉한다. 여기서 화

자는 일상과 일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다. 이 두 개의 갈등의 양상은 화자가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한다"을 되풀이 하면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현실세계의 삶의 의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나의 자아로」("Into My Own")에서 화자는 현실생활에서의 고달픔을 털어 버리고 끝없이 펼쳐진 숲속으로 도피하고픈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내 한가지 소망은, 해묵고 단단하며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다시피한 저 검은 나무들이
우울의 가면을 걸치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종말까지 뻗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다.

나 또한 어느 때엔가 저 광막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리.
공터라든지, 모래를 떨어뜨리며 느리게 굴러가는
차바퀴 다니는 행길을 만날 염려없이.

One of my wishes is that those dark trees,
So old and firm they scarcely show the breeze,
Were not, as 't were, the merest mask of gloom,
But stretched away unto the edge of doom.

I should not be withheld but that some day
Into their vastness I should steal away,
Fearless of ever finding open land,
Or highway where the slow wheel pours the sand.(5)

화자는 숲이 오래되고 우거져서 바람 한 점 없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고달픈 현실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어 한다. 또한 부디 그 숲이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 영원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한다. 제 2연에서 그는 현실의 삶을 상징하는 "공터"나 "행길"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다시는 숲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가 인간들을 철저히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될 것이라고 말함으

로써 마음의 갈등을 보인다.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겠지,
나를 못 잊어하고, 아직도 내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간 길을 뒤쫓아 오면 될 것이기에

그들은 내가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알게 되리라.
소신이 더욱 확고해진 것 외에는.

I do not see why I should e'er turn back,
Of those should not set forth upon my track
To overtake me, who should miss me here
And long to know if still I held them dear.

They would not find me changed from him they knew-
Only more sure of all I thought was true.(5)

제 1,2 연에서는 현실을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 비록 고달프지만 현실의 삶을 온전히 등질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 자신은 현실세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 시에서는 화자가 현실의 삶과 그 현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선택 앞에서 심한 내적인 갈등을 보인다. 궁극적으로 거대한 어둠의 숲으로의 여행은 내면의 영역으로의 여행을 의미한다. 즉, 인간 내부의 광활한 어둠속으로의 여행인데 이것을 통해 결국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함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 시는 숲을 미지의 상징으로 보며 인생을 탐색의 여정으로 파악한다. 또 '나'와 '타인'의 관계를 공통적인 인간조건에서 긍정하고 있다. 인간은 공동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전체와 부분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 존재의 필연성에 대한 고뇌를 이 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프로스트가 구체적인 상황 설정과 세밀한 심리묘사를 통하여 인생에서 선택의 어

려움과 그 과정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이 있다.

단풍진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지요,
두 길을 다 가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한 나그네의 몸이라
덤불 속으로 굽어 들어간 한쪽 길을
아쉬운 마음으로 오래오래 보고 있었습니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니다.
왜냐하면 풀이 무성하고 인적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니다;
그것으로 말하자면 많은 이들이 지나가
똑같이 밟혀져 있을지라도,

그날 아침에, 두 길은 모두
아무에게도 밟혀지지 않은 낙엽 속에 묻혀 있었습니니다.
아, 다른 날을 위해 한 길을 남겨 두었습니니다!
그러나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먼 훗날 난 어디선가
한숨지으며 말 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답니니다 라고.

Two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traveler, long stood
And looked down one as far as I could
To where it bent in the undergrowth;

Then took the other, as just as fair,
And having perhaps the better claim,
Because it was grassy and wanted wear;
Though as for that the passing there
Had worn them really about the same,

And both that morning equally lay
In leaves no step had trodden black.
Oh,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Yet knowing how way leads on to way,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I shall be telling this with a sigh
Somewhere ages and ages hence:
Two roads diverged in a wood, and I -
I took the one less traveled by,
And that has made all the difference.(105)

이 시의 중심 소재가 되는 "길"은 사람과 인생과정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가지는데 숲에 난 길이라는 가시적인 길은 인생에서 걸어온 길이라는 추상적인 길의 의미를 포함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마음속으로 두 길을 가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망설이기도 하고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함을 프로스트는 길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 시에서 보여준다. 프로스트는 선택이라는 그와 같은 행위를 이미 행하여진 선택, 앞으로 내려야 할 선택, 혹은 내려야만 하는 선택, 아직 행하여지지 않은 선택과 같이 다양한 주제로 많은 시를 썼다. 그것은 또한 물론 그러한 선택의 행위들이 신중하게 고려하는 삶의 피할 수 없는 결과들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프로스트 시에는 여행을 소재로 한 시가 많다. 여기에서 여행은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는 실제의 여행이기도 하다. 현대화 되어가던 시기이며,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도시문명에 바탕을 두며, 문학의 주요주체도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의 폐단을 반성하던 시기에 그 중심인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에 거주하면서 이 시대의 삶을 반영한 시를 프로스트가 쓴 것은 일탈 속에서 일상을 관조

하고 명상했다고 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찰과 깊은 사고를 통해 인생을 통찰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모색했던 그의 시 소재는 시골과 자연이며, 그런 시골은 그의 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살아가는 도시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시의 일상에 지친 독자들은 프로스트의 자연시를 읽어가며 도시로부터의 정신적인 일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민들의 시골로의 휴가는 독자들이 시를 읽으며 인식을 얻는 것과는 같은 맥락이다. 그 정신적 일탈은 잠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꿈이나 달콤한 낮잠과 같은 것이다.

프로스트 시에는 여행길의 소재가 많다. 길을 떠나지만 화자들은 한결 같이 귀가한다. 그것은 일탈에서 일상으로의 복귀이다. 여행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일상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갖게 되듯이 일탈은 일상의 의미를 깨닫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들의 일탈은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에 더 충실할 수 있기 위함이다. 관습이나 혼란에 의해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일탈이며 여행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일상으로부터의 일시적인 일탈을 피함으로 해서 일상을 돌이켜 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아추구까지 이어지는 심오한 철학에 도달하게 된다. 일탈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짧은 휴식이며,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은 갈 때와는 달라 현대사회의 고단함을 일부 덜거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모습을 하게 된다. 그 일탈과 일상의 관계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 개념이 아니며 서로 팽팽한 긴장 상태로 대조의 구조를 갖추면서 견제하면서도 조화를 유지한다.

Ⅲ. 갈등의 극복

인간과 친화될 수 없는 단절된 자연 속에서 프로스트는 시의 인물들을 통해 고립과 소외감, 현실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고 형태를 창조함으로써 인생을 해명하고, 고독한 인간 조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프로스트는 고난의 순간과 열악한 상황을 정신적 여유로 극복해 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다. 이것은 있다. 인간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인물을 통해서 혼란한 현실에 맞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시인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세력은 앞서 밝힌 자연의 양면성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의 자연으로 대변된다.

그의 시 「눈」(“Snow”)에서 등장하는 목사 미서브(Meserve)는 정복 될 것 같지 않은 현실에 용감히 도전함으로써 인간에게 현실 극복의 확신을 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 미서브는 눈보라와의 투쟁 끝에 그의 말을 쉬게 할 목적으로 콜(Cole)부부를 깨운다. 얼마 후 위협적인 상황에서 다시 길을 떠나려는 미서브를 만류하는 콜에게 그는 단지 폭풍이 오니까 가야한다고 말한다.

얼마간 그녀는 말이 없다가 프레드에게 말했다.
‘신’을 믿기에 간다고 말할 거라고
그런 말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그는
“단지 폭풍이 몰려 오니까 가야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부름을 받은
어떤 이나 전쟁에 나가야하는 것처럼요.”라고 대답했다고.

Well, there's - "She told Fred afterward that in
The pause right there, she thought the dreaded word
Was coming, "God." But no, he only said,
"Well, there's- the storm. That says I must go on.
That wants me as a war might if it came.
Ask any man."(151)

미서브가 그의 말을 휴식시키는 것에서 그가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는 무분별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길을 떠난 것이다. 이에서 프로스트 시에 나타난 저항정신과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만약 프로스트가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탐색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저항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저항했다. 왜냐하면 그의 시에 공포, 죽음, 죽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고독에 저항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²¹⁾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오히려 과감하게 두려움과 맞섬으로써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스트의 시에는 공포와 죽음, 고독에 저항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도전과 저항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패와 좌절은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의 통찰력과 인성을 수양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경험을 통해 얻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실패를 진보를 위한 밑거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도전과 실패는 인생에서 한층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도전해보지 않고서는 어떤 일에서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는 알 수 없다. 실패와 성공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시가 「거친 곳이 있다」(“There are Roughly Zones”) 이다.

그 사람의 야심이 북쪽 끝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당신은 말씀하시겠죠.
어째서 자연은 옳고 그름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지만
누군가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거친 지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렇게 영원히 힘든 걸까요?

You would say his ambition was to extend the reach
Clear to the Arctic of every living kind.

21) Gerber, p. 169.

Why is his nature forever so hard to teach
That though there is no fixed line between wrong and right,
There are roughly zones whose laws must be obeyed? (305)

이 시는 인간의 욕심으로 북쪽의 끝까지 생명체를 심으려는 노력이 무모한 것인가 즉, 자연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는 실행해 보지 않고서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누구도 결과를 장담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따라서 복숭아나무가 죽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그 책임을 돌려야 하겠지만, 어느 쪽이든 인간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어떤 것은 신에게 맡겨야 하겠지만 도전은 계속되어야 하며, 한계 상황까지 최선을 다한 후에 맞게 되는 도전의 결과는 성공과 실패 여하에 관계없이 가치 있는 산 경험이 될 것이다.

모험과 탐색과 관련하여 톰슨(Lawrence Thompson)이 프로스트의 전기에서 인용한 제임스(William James)의 다음과 같은 말은 프로스트의 시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인간이 어떤 것, 생산적인 혹은 독창적인 것을 상징하는 한 인간의 전체 생활 기능은 '아마도'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승리를 얻을 수도, 믿음이 충만한 용기 있는 행위가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다. ... 실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험에 의해서 만이 인간은 시간에서 또 다른 시간으로 삶을 연속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믿음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22)

'아마도'에 바탕을 둔 모험과 탐색이 없이는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탐색을 위한 모험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계속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불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에 대한 프로스트의 도전 정신은 결과의 성패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죽기 전까지 삶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신념으로 도

22) Lawrence Thompson, Ed.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tson, 1964.), p. 8.

전과 저항의 과정에서 삶의 의의를 찾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스트이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성을 벗어난 무모한 도전을 경계하고 분별력을 잃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수용과 순응의 태도는 저항과 도전의 정신 못지 않게 그의 시를 통해 강하게 전달된다. 프로스트는 삶이 어둡고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함으로써 또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비극적이고 고독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로스트는 도전 정신과 더불어 수용적 태도를 통해 삶의 진실을 해명하고 고립과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을 통하여 인간의 혼란의 세계에 형태와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어떤 현상에 대하여 뚜렷한 견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태도는 윈터스와 같은 비평가들로부터 프로스트가 독자적인 철학체계를 갖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시를 썼다는 혹평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가지 않은 길」은 정신적 배회자로 불리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시이다. 그리고 정신적 배회자는 주요한 시인이 될 수 있는 지성과 힘 두가지 중 하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²³⁾

윈터스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 「가지 않은 길」의 시를 통하여, 프로스트가 뚜렷한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신적 배회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시를 쓰고자 했던 프로스트는 삶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진리에 더 깊은 관심이 있다. 따라서 프로스트가 독자적인 철학 체계가 없다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보는 그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프로스트의 많은 시에 바탕이 된 회의주의는 인간의 유한성과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하나의 현상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삶에 대한 명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우어(Brower)는 프로스트가 모든 현상의 중심부에 있는 신비를 추측해 보는 의미의 지혜로운 회의주의자라고 평한다.²⁴⁾ 신비란 이성의 힘으로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만일 그 무엇이 분명

23) Yvor Winters, "Robert Frost: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p. 134.

하게 밝혀졌을 경우, 이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주의는 프로스트가 어떤 대상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며 역설적으로 더욱 심화된 사색과 명상을 하게 한다.

이와 같은 프로스트의 회의주의적 사고는 그로 하여금 존재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 그는 인생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의 미덕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을 본다. 그의 시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는 고립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자연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일정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창조적 사고와 타인을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는 프로스트는 「블루베리」(“Blueberries”)에서 힘겹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분수를 넘지 않으며 정직하게 사는 순박한 사람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막강한 자연세계에서 무상함과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 자연이 기꺼이 내어 주는 것만
취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무언가를 바라고
자연에게 썬레나 쟁기를 강제로 쥐어주기 보다는.”

“...It's a nice way to live,
Just taking what Nature is willing to give,
Not forcing her hand with harrow and plow.”(61)

이 시에서 프로스트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들의 가난하고 힘들지만 넉넉한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인간을 고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다.

「목장」(“The Pasture”) 에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마음을 열어 자연을

24) Reuben A. Brower,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Oxford: Oxford UP, 1993), p. 91.

잘 이해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장의 샘물을 치러 가는 길이네.
낙엽을 긁어치우고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려 볼 생각이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니 자네도 오게.

어미 소 옆에 서 있는
송아지를 데려올 생각인데 아주 어려
어미 소가 핏으면 비틀거릴 정도이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네. 자네도 오게.

I'm going out to clean the pasture spring;
I'll only stop to rake the leaves away
(And wait to watch the water clear, I may):
I sha 'n't be gone long.- You come too.

I'm going out to fetch the little calf
That's standing by the mother. It's so young.
It totters when she licks it with her tongue.
I sha 'n't be gone long- You come too.(1)

물 위의 낙엽을 줍는 대신 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자연이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이 시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프로스트의 시에서 이러한 수용의 태도는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과 단절, 대립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 1연에서 숲 속에 있을 샘을 깨끗하게 하러 가는데 나뭇잎을 걷어내고 물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리겠다고 한다. 나뭇잎이 걷어지고 물결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면 물로 맑고 고요해져서 화자의 모습이 비칠 것이다. 성급해서도 안 되고 물에 어떤 행동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 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

생을 돌아볼 수 있다. 도시민들이 지쳐 있을 때 그의 시를 읽으며 마음의 한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인생과 모습을 들여다보며 자아를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제 2연에서는 갓 태어난 송아지가 상징하는 순수함, 순진함을 찾으러 간다. 순수함은 세상의 혼란과 세파에 오염되기 쉬운 매우 어린 것이다. 시를 통해 그 순수함을 찾아 보려하니 독자들도 함께 동참해 보라고 한다. 단순함과 순수함은 복잡하고 혼란스런 현대사회로부터의 위안이며 자아회복과 적절한 가치관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스트의 인생론적 의의가 담겨 있는 대표적인 시 「자작나무」(“Birches”)에서 프로스트는 이상을 지향하되 인간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수용적 태도와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비극적인 현실과, 단절된 인간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도 한때는 자작나무 타던 소년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꾸다.
이런 저런 생각들도 지치고
인생은 길 없는 숲 같아
거미줄에 얼굴이 근지럽게 달아오르고
잔가지가 부딪쳐 한쪽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나는 잠시 이 지상을 떠나고 싶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고 싶다.
운명이 내 뜻을 오해하여
내 소망의 반만 들어주고, 나를 납치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세상은 사랑하기 좋은 곳,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을 알지 못한다.

So was I once myself a swinge of birches.
And so I dream of going back to be.

It's when I'm weary of considerations,
 And life is too much like a pathless wood
 Where your face burns and tickles with the cobwebs
 Broken across it, and one eye is weeping
 From a twig's having lashed across it open.
 I'd like to get away form earth awhile
 And then come back to it and begin over.
 May no fate willfully misunderstand me
 And half grant what I wish and snatch me away
 Not to return, Earth's the right place for love:
 I don't know where it's likely to go better.(122)

프로스트가 그의 시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이상과 현실의 조화와의 추구가 이 작품에서 상징과 은유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 시인은 휘어진 자작나무를 보면서 어느 소년이 나무를 탔을 거라는 상상에서 시작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거미줄과 얼굴에 상처를 주는 가지들로 상징되는 인생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은 어른이 된 지금 피하고 싶은 현실이며, 이런 저런 인생사에 지친 시인은 잠시 이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52-53행의 '세상은 가장 사랑하기 좋은 곳'이란 표현을 통해 시인의 지상에 대한 애착과 현실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행여나 지상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이상 세계로의 여행은 두려운 것이며 시인이 원치 않은 여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상에의 사랑을 밑바탕으로 하는 사물에 대한 시인의 관찰과 명상은 인생에서 접하게 되는 고립과 소외감을 포함한 모든 현상과 경험을 수용하는 여유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정신적 여유에서 용기를 얻어 고독한 삶을 더 새롭고 진지하게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뉴만(Lea Newman)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프로스트의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한다.

1913년에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를 격찬했다. 그는 “나는 인생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농장에서는 보다 개인적으로, 도시에

서는 보다 사회적으로 말입니다.”하고 덧붙였다. 이는 그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이다.²⁵⁾

프로스트가 균형을 추구하는 미덕을 격찬했으며, 인생이 앞으로든 혹은 뒤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화와 균형의 삶을 강조한 말이라 하겠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고립, 그로 인한 소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유한 개인적 영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자세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몽고메리의 “프로스트의 장벽”에 대한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렇게 남는다. 갈등이 혼란의 세계와 인간이 노동하는 물질세계를 존중하게 하는 사랑은 이해와 불어 찾아든다. 이와 같은 사랑은 서로 다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그의 차이를 존중할 것이라도 기대한다.²⁶⁾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갈등이 있는 혼란한 세상은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고, 상대방이 지닌 차이점을 존중할 때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스트는 개인의 내면에서만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으나 점차 그것을 질서 있게 다루는 방법을 모색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고독과 고립에서 야기되는 내적 방향을 겪은 후 인간에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아를 성찰하게 되며, 고독 속에서 참된 사랑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다.

일의 의미나 일을 통한 삶의 의미를 다룬 시에서 프로스트의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간소외, 고립, 좌절감 속에서 나름대로 긍지를 지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소박하고 성실한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시인 자신의 모습과 노동의 가치를 명상하고 되짚어볼 수 있다. 이제 프로스트가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자신의 경험과

25) Lea Newman,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New England Press, 2000), p. 77.

26) Montgomery, p. 148.

명상으로부터 터득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서 인간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스트 시의 인물들은 비록 필요에 의해 노동을 하지만 노동 그 자체를 사랑하고 즐기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의 시 「풀베기」(“Mowing”)에서는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평범한 일상생활의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한가한 시간이 가져다 준 꿈도 아니요

요정한테서 쉽게 얻은 금(金)도 아니다.

사실 이상으로 말해서는 곤란하다.

...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

나의 긴 낮은 속삭이며 풀을 베어 나아갔다.

It was no dream of the gift of idle hours,

Or easy gold at the hand of fay or elf:

Anything more than the truth would have seemed too weak

...

The fact is the sweetest dream that labour knows.

My long scythe whispered and left the hay to make.(17)

묵묵히 풀을 베면서도 낫소리의 의미에 집중하던 화자는 노동하는 현실이야말로 가장 달콤한 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낫이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쌓여가는 건조를 보며 힘겨운 노동은 화자의 명상을 통해 달콤한 꿈과 같아진다. 땀 흘리는 노동의 과정을 통해 사실과 꿈이 합쳐지는 순간이 화자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순간으로 자리 잡는다.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풀을 베고 있을 뿐이지만 화자는 노동에 더욱 몰입해가면서, 그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더해간다. 낫이 내는 소리에 몰두하며 육체적 고통과 외로움도 잊은 채, 노동의 즐거움에 심취해 있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이 시는, 노동의 즐거움이 현실적 노동에 근거한 기쁨이며,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시의 마지막 두 행에서 현실적 노동의 즐거움이 심미적인 기쁨으로 승화되어 “사실”

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땀 흘리지 않고 얻어지는 안일한 기쁨보다는 인간의 땀과 노력이 요구되는 노동의 기쁨을 중시하는 것이며, 사실과 꿈이 조화되는 경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육체를 지닌 인간이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이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라면, 그 노동의 토전을 제공하는 지상의 현실은 꿈이 있는 노동을 매개로 이상적인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 하겠다. 이 시와 관련하여 운터메이어(Untermeyer)는 “일하는 자로서 시인은 자신과 낮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도구가 일을 수행할 때, 그들 사이의 진정한 사랑은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를 가져다준다.”²⁷⁾라고 말한다. 인간이 낮과 하나가 되어 일을 수행할 때 일에 대한 사랑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진리”는 이 시는 13행 “사실은 노동이 아는 가장 달콤한 꿈”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는 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삶의 문제에 대해 깊은 사색이나 명상을 하는 활동을 정신적 노동으로 볼 때, 프로스트에게 있어서 일을 하는 것과 시를 창작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스트 시 속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프로스트의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그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당신이 시 분야에서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 노동을 좋아하시지요?” “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지요. 저는 고독한 학자인 적이 없었고, 항상 땅을 사랑했습니다.”²⁸⁾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스트는 땅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면서 시작(詩作)활동을 했던 것이다.

프로스트에게 시작(詩作)은 노동이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이고, 삶의 의미 있게 해 주는 원동력이 된다. 시를 쓰는 일은 시인의 정화된 정서에 의한 예술적 창조이며, 이와 같은 창조의 행위는 인간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fact)’이거나 ‘실체(reality)’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삶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뚜렷한 실체로 파악한 프로스트가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27) Louis Untermeyer, *The Pocket Book of Robert Frost's Po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46), p. 91.

28) Edward Connery Lathem,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blishers, 1997), p. 285.

노동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프로스트는 이 시를 통해 인간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서 일을 할 때, 노동의 결실과 합쳐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노동이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때 인간은 고독한 상황을 극복하고 활기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씨뿌리기」(“Putting in the Seed”)에서는 작은 씨앗이 땅을 헤집고 나와 탄생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일종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노동의 행위 뒤에 오는 성취와 만족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주어진 현실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완수함으로써 고독을 극복하고, 인간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씨를 뿌릴 때에도, 그리고
잡초들이 땅을 덮어서
튼튼한 묘목이 몸을 굽혀
어깨로 땅을 헤집고 나오는
어린 생명의 탄생을 지켜 볼 때에도
사랑이 진정 뜨거워지나니.

How love burns through the Putting in the Seed
On through the watching for that early birth
When, just as the soil tarnishes with weed,
They sturdy seedling with arched body comes
Shouldering its way and shedding the earth crumbs.(124)

남편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머지않아 땅을 헤집고 나오는 모습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일을 열중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을 일구어 내는 봄철 땅의 매력에 이끌린 화자는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의 일부가 된 것이며 남편을 데리러 온 화자의 아내 역시 자신의 느낌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정한 노동의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프로스트는 노동과 관련된 그의 작품을 통해 노동을 인간 삶의 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의 본질과 노동의 의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삶의 명상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과를 딴 후」(“After Apple Picking”)에도 노동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시는 늦가을에 사과 따기를 거의 마치고 휴식의 계절인 겨울을 맞이한 농부가

피로 속에서나마 만족스러움과 축복의 기분에 쌓여 사과 따기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회상하는 시이다. 사과 따는 노동의 묘사는 피로감, 만족감, 감사의 기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노동을 한 후에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축복의 감정이다.

나의 길다란 두 다리 사다리는 나무를 뚫고
하늘로 향해 있다.

그 옆에는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통이 놓여있고 또한 가지에서 따지 못한
사과 두 세 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 이제 사과 따기를 마치려 한다.

My long two-pointed ladder's sticking through a tree
Toward heaven still,
And there's barrel that I didn't fill
Beside it, and there may be two or three
Apples I didn't pick upon some bough.
But I am done with apple-picking now.(68)

이 시는 단순한 사과따기라는 농부의 일상생활의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 사과따기의 현실적 체험에서 오는 정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²⁹⁾ 왜냐하면 화자가 사과를 따는 일을 마치고 쉬고 있지만 걸쳐 놓은 사다리, 아직 사과를 담지 않은 빈 바구니, 그리고 따지 않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두 세 개의 사과 등은 인간의 일이 늘 끝이 없는 미완성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단순하게 사과를 따는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결국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9) Donald J. Greiner, *Robert Frost: The Poet and His Critic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4), p. 229.

IV. 결론

프로스트의 시에서 일관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과 인생의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그는 이러한 삶의 문제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 자신의 내적 갈등 등의 관계를 통해 해명해보고자 하였으며 이것은 그의 시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 직면하여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거나 인간에게 무심하고 냉혹한 자연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 상호 관계에서의 고독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대화의 부족 또는 무관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타난 인간 갈등으로 먼저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들 수 있다. 자연은 때로는 호의적이어서 인간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대단히 무관심하고 때로는 위협적이어서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대립과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그의 시에서 자연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냉혹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프로스트의 시에 나오는 무관심하고 위협적인 자연을 대할 때 인간은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단절감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 인간에게 기쁨과 희망, 용기를 주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함께 자연의 거대성, 다양성, 파괴성을 인식한 프로스트는 그로 인한 인간의 공포와 좌절, 인간성의 한계를 시 속에 전개한다.

프로스트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단절과 갈등이 있음을 시인하고 그 속에서 인간을 성찰함으로써 한계를 배우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보여주는 프로스트의 시에서 시 속의 인물들은 자연과 동화 또는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괴리감을 재확인하게 되면 인간과 자연의 대립과 긴장으로 공포를 느끼거나 고독감과 소외감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 심화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적인 도피로 위안을 찾으려하지 않고 강항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꾸준한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고난을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 상호 관계에서의 고독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 사고방식의 차이, 대화의 부족과 무관심, 생계유지를 위한 지나친 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트는 인간이 그 내

부에 스스로 고독하고 황폐한 공간을 지니고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임을 「황폐한 곳」(“Desert Places”)와 「밤에 익숙한」(“Acquainted with the Night”)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프로스트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고독과 한계성, 상반된 가치관과 의견으로 인한 인간 상호간의 갈등과 소외현상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삶의 과정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가 모두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믿음으로 프로스트는 「눈」(“Snow”)와 「거친 곳이 있다」(“There are Roughly Zones”)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거대한 자연에 맞서는 시의 저항과 도전의 정신을 보여준다. 프로스트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고 생존하려는 인간의 용기야말로 예견할 수 없는 우주 속에서 인간의 생존 능력을 강화시키고 고독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나약한 인간이 막강한 자연과 맞서 대항하는 것이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독하고 열악한 상황에 무기력하게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도전 정신으로, 때로는 수용적 태도로 유연하게 현실의 갈등에 대처하며 도전의 과정에서 인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프로스트가 그의 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고독 극복의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많은 작품에서, 무한한 우주 속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과 한계 때문에 고독감과 소외를 느끼거나 인간 상호간의 대화의 단절로 고립감과 갈등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도전적 자세로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때로는 자연에 조용히 순응하면서 지상에의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용적 태도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나타난 고독과 소외현상을 생에 주어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삶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 「자작나무」(“Birches”)에서는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지상을 완전히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지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하는 지상에의 애착과, 현실과 이상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프로스트의 삶의 태도가 제시되어 있다.

프로스트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노동을 통해 부정적 자연과의 대립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하거나, 노동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간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노동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깨닫

기도 한다. 프로스트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서의 노동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여유를 빼앗고, 고독과 좌절, 때로는 죽음까지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도 하고, 일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통해 고독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고 인간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프로스트는 노동에 관련된 그의 많은 작품을 통해 인생에 있어서 생을 영위하기 위한 노동이 괴로운 것이다 할지라도 노동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넉넉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의 시에서 강조하고 있다.

프로스트의 시 세계와 삶의 태도를 그의 시 「오늘은 위한 교훈」(“The Lesson for Today”)에서 ”묘비에 나의 일생을 쓴다면 세상과 사랑싸움을 했다고 쓰겠다.“(355)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시련이나 고독과 고통, 불행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프로스트의 신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가 자연이나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민했다는 사실은 그 자신이 자연이나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자연이 더 이상 인간에게 포근하고 호의적인 쉼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주쳐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그려져 있으며, 프로스트는 그의 시를 통해 이러한 자연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프로스트는 그의 시속의 주인공들을 통해 자연과 인간 단절이나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두절과 같이 심화된 비극적 현실 속에 이에 굴복하거나 일시적이 도피처를 찾으려 하지 않고 강한 의지력과 용기로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간 고뇌의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스스로의 도전 정신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수용, 조화시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적이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고독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면서도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확신하는 프로스트는 도전 정신과 더불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로 인생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을 수용, 조화시켜 인간의 소외감과 고독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기쁨을

전달함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 고독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복잡한 현대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Bibliography

I. Primary References:

Frost, Robert. *The Poetry of Robert Frost*. Ed. Edward Connery Lathem. London: Jonathan Cape, 1977.

_____. *Selected Prose of Robert Frost*. Ed. Hyde Cox and Edward Connery Lathem.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6.

II. Secondary References:

Barry, Elaine. *Robert Frost*. New York: Frederik Unger Publishing Co., 1973.

_____. Ed. *Robert Frost on Writing*. New Burnswick, N.J.: Rutgers UP, 1973.

Brower, Reuben A. *The Poetry of Robert Frost: Constellations of Intention*. Oxford: Oxford UP, 1993.

Doyle, John Robert Jr. *The Poetry of Robert Frost: An Analysis*. New York: Hafner Press, 1962.

French, Roberts W. "Robert Frost and the Darkness of Nature," *Critical Essays on American Literature*. Ed. Philip L. Gerber. Boston: G. K. Hall & Co., 1982.

Gerber, Phillip L. Ed. *Critical Essays on Robert Frost*. Boston: G. K. Hall &Co., 1982.

_____. *Robert Frost*. New York: Twayne Publishers Inc., 1966.

Greiner, Donald J. *Robert Frost: The Poet and His Critic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74.

Lathem, Edward Connery. *Interview with Robert Frost*. New York: Jeffrey Norton Puplichers, 1997.

Lynen, John F. "The Pastoral Art of Robert Frost," *Nature and Pastoralism*. New Haven: Yale UP, 1960.

MacClanahan, Thomas. "Word I had No one But God," *Centennial Essays II*. Jackson: Mississippi UP, 1974.

Montgomery, Marion. "Frost and His Use of Barriers: Man vs. Nature Toward God,"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Newman, Lea. *Robert Frost: The People, Places and Stories behind His New England Poetry*. Vermont: The New England Press, 2000.

Poirier, Richard. *Robert Frost: The Work of Knowing*. Oxford: Oxford UP, 1977.

- Potter, James L. *Robert Frost: A Handbook*. University Park: The Pennsylvania State UP, 1980.
- Sohn, David A. and Tyre, Richard H. *Frost: The Poet and His Poet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 Sweeney, John David & Lindroth, James. *The Poetry of Robert Frost: A Critical Guide to Appreciation of Meaning, Form and Style*. New York: Mornach Press, 1965.
- Thompson, Lawrance. Ed. *Selected Letters of Robert Fros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4.
- Trilling, Lionel. "A Speech on Robert Frost: A Cultural Episode,"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 Untermeyer, Louis. *The Pocket Book of Robert Frost's Poems*. New York: Henry Holt & Co., 1946.
- Warren, Robert Penn. "The Themes of Robert Frost," *The Writer and His Craft: The Hopwood Lectures, 1932-195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4.
- Winters, Yvor. "Robert Frost: The Spiritual Drifter as Poet," *Robert Frost: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James M. Cox.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2.

<Abstract>

**Aspects of Conflict and Its Overcoming
in Robert Frost's Poems**

Kim, Jung 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Yoon De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n's overcoming conflicts in the poetry of Robert Frost. He describes the nature and the people of New England as they really were. He tries to determine the true meaning of man's life and man with nature. He deals with man's relationship with nature. The focus is also concentrated on the conflicts in man's life.

In Frost's poetry nature has two aspects: 'Positive' and 'Negative'. Nature sometimes gives man hope and pleasure, but more often, is a destructive force. In other words, Frost never thinks that man can live fantastically or romantically amid the harsh realities of the world. Therefore, the people in Frost's poems are afraid of the threat and indifference of nature. In Frost's poems where nature is cast as an opposing threat, man suffers from the alienation and horror caused by the hostility of the elements and nature's ruthless indifference to human beings. In addition, men experience internal absence in the stark reality of death-in-life.

Frost also deals with the themes of solitude, isolation, and alienation caused by a lack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husband and wife, neighbors or colleagues. He concurrently describes physical labor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using symbolic, natural background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Frost felt that confrontation and conflict always exist in man when ever man comes into existence. Frost thought man could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everyday life with the aid of courage and a strong will. In his poems, a farmer finds both appreciation and value while he works, the unity of need and love for labor is well described as an ideal sense of labor. In some of his poems related to labor, Frost emphasizes that man can overcome some aspects of conflicts by taking pleasure in working hard.

In Frost's works, the human spirit must continuously enlarge itself and contend with nature. With this challenging spirit, the receptive attitude required to harmonize with human society enables man to overcome the conflicts through the works of his whole life. Thus, he continue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life portrayed by good example of the true meaning of life.